

## 길

윤동주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들과 들과 들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이해할 수 있는 부끄러움

20160042 구인용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의 시〉를 읽었다. 글을 들어가기 앞서, 윤동주 에세이는 유독 시작하기가 어려웠음을 고백한다. 언제나 본 수업의 에세이를 작성하는 데는 약 4 시간이 소요되는데, 지금 이 문장은 이미 두 시간 넘게 고민하여 쓴 1000 자 이상의 초고를 갈아엎고 입력되는 문장임을 밝힌다.

글을 구성하는 것이 유난히 어려웠던 이유는 윤동주가 워낙 유명하다는 것에 있다. 중학교 때 수행평가로 “서시”를 암기해야 했고, 고등학교 문학 시간엔 “쉽게 쓰여진 시”를 밑줄 쳐가며 공부했다. 애초에 초등학교일 때부터 “별 헤는 밤”을 수없이 따라 치며 타자를 연습한 나였다.<sup>1</sup> 그래서 그의 시를 주로 이루는 정서가 ‘부끄러움’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가 식민지 시절의 지식인으로서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다 결국 안타깝게 요절한 청춘임도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라온 다른 학우들도 나처럼 윤동주와 학창 시절을 같이했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를 다루는 것이 어려웠다. 이미 그를 이해하는 몇 개의 틀을 모두가 갖추었을 텐데, 내가 윤동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지운 초고도 ‘우리는 과연 윤동주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출발했으나, 자신부터가 남들보다 윤동주를 잘 아는 부분이 없어 글을 전개하는 것이 힘들어 버려진 것이었다. 그래서 글의 방향성을 아예 바꾸기로 했다. 먼저 시집을 읽으며 확인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윤동주의 개성’을 정리할 것이다. (아마 뻔한 이야기가 되겠다.) 그 후에, 나에게 어떻게 윤동주는 ‘학습된 감상’ 이상의 감동을 주었는지, 조금 사적인 경험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본론.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의 시〉를 읽었다. 사실 윤동주의 대표작 몇 편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접할 기회가 많지만, 그의 시집 한 권 전체를 읽어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다. 우리가 윤동주에 대해 알고 있었던 바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동주의 글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참회의 기록이다. 시 “참회록”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 말을 증명하듯, 그는 끊임없이 부끄러움을 이야기한다.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이 부끄럽고(“쉽게 쓰여진 시”),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어 괴롭고(“바람이 불어”), ‘한 번도 손들어 보지 못한 나라서,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나라서 견디질 못한다(“무서운 시간”).

그가 이토록 부끄러워하는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 그 기저에는 그의 맑은 심성이 자리한다. 시집의 절반이 그의 자아 성찰을 담았다면, 화자가 괴로워하지 않는 나머지 시들은 티 없는 눈으로 세상을 관찰한 내용을 담는다. 시 “눈”을 살펴보자. ‘지난밤에 / 눈이 소오복이 왔네 // 지붕이랑 / 길이랑 발이랑 / 추워한다고 / 덮어주는 이불인가 봐 // 그러기에 / 추운 겨울에만 나리지’. 아, 얼마나 따뜻한 발상인가. “겨울”이나, “호주머니” 등의 다른 시에서도 나타나는 그의 순수한 발상들은 ‘달랑달랑’, ‘갑북갑북’ 같은 의태어들과 만나 예쁜 동시처럼 표현된다. 이러한 내용이라도 ‘~하오’, ‘~라’ 등의 종결어미와 함께 되었다면 김소월을 비판했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중 2 병’ 혹은 ‘꼰대’처럼 불편하게 읽힐 여지가 있겠으나, 윤동주는 존댓말 또는 “~~이다” 등의 겸손하고 담백한 어미 만을 사용한다. 이로 인해 그의 글은 어떤 체험에 대한 어린 아이의 솔직한 감상을 전해 듣는 듯, 미워할 수 없는 표현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곧은 사람이기에, 그는 분명 끊임없이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거쳤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는 나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루지 못한 좋은 일들에 대해서도 부끄러워 했던 것이다.

<sup>1</sup> 한컴 타자연습에서는 긴 글 연습으로 윤동주의 “별 헤는 밤”과 이효석의 “메밀 꽃 필 무렵” 등을 제공한다.

물론 그가 괴로웠던 까닭은 밖에서도 찾을 수 있다. 먼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맑은 영혼이 처하기엔 너무 암울하고 부조리한 시대였다. 힘없는 학생의 신분으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자주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무력감은 자괴감의 씨앗으로 작용했을 것이 분명하다.

두 번째 외적 요인은 (감히 추측하자면) 그의 잘 알려지지 않은 벗, 송몽규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나는 송몽규라는 인물의 존재를 영화 <동주>(2016)를 보며 처음 알았다. 그 때 썼던 감상문을 다시 읽어보니, ‘동주의 재발견보다는 몽규의 발견에 더 큰 의미를 갖는 영화’라고 평가할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영화 속의 송몽규에게 더 많은 매력을 느꼈는데, 조사를 해보니 그는 실제로도 능동적이고 정치적인, 강한 리더십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더욱이 문학적인 재능도 윤동주를 능가했다고 하니, 윤동주는 자신과 대조되는 성격의 송몽규에게서 어떤 열등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영화에서도 서정적인 시를 쓰는 윤동주와 계몽적인 글을 쓰며 독립 운동을 진행한 송몽규의 대비와 갈등이 등장하는데, 자신보다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시대에 저항하는 송몽규를 보며 윤동주는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 두번째 이유가 윤동주를 조금 더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윤동주의 시에 드러나는 부끄러움의 정서와, 그의 맑고 곧은 마음과,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이런 내용은 교과서를 통해 배운 내용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공감(共感)하기는 어려운 내용이기도 했다. 나는 그리 맑은 영혼의 소유자도 아닐 뿐 더러 식민지 국가의 국민으로서 느끼는 분함을 체감해본 적도 없었으니, 윤동주의 글을 읽을 때의 감동은 이성적인 수준의 이해와 유감(有感) 정도에 그쳤었다. 그러나 자신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이가 자신은 행하지 못한 모습으로 삶을 주도해 나가는 것을 친구의 위치에서 바라볼 때의 부끄러움, 그 부정할 수 없는 열등감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가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스스로를 미워하고, 가엾어 할 때, 우물을 들여다보는 동안 윤동주는 잠시 송몽규의 얼굴을 떠올렸으리라고 생각했다.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까, 그의 시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 다가왔다.

잠시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여담으로 푸는 이야기지만, 부러움이 미움이 아닌 부끄러움의 형태로 윤동주의 글에서 나타나는 것이 나에게는 특히 감동적이다. 때로 열등감은 그 대상에 대한 철없는 미움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질투가 삶을 이루는 힘이 되기도 한다. (기형도 에세이에서 “질투는 나의 힘”시에 관해 짧은 감상을 적기도 했었다.) 하지만 윤동주는 그런 감정을 타인의 뛰어난 것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으로 표출하지 않고,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한 반성과 성장의 계기로 삼는다. 그것이 그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 방법’이었다(“서시”). 우리가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이해할 때 본받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감상은 “서시”를 반추할 때마다 나를 참회에 젖게 하였다.

윤동주의 시를 타자 연습에서, 교과서에서, 시집에서, 영화에서... 다양한 곳에서 마주쳤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내게 ‘기억에 남는 지나침’<sup>2</sup>은 작년, 유성구청 앞 버스 정류장에서 그의 시 “길”을 마주쳤을 때이다. 윤동주는 시 “서시”에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며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다.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그 절개를 유지하며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당시는 윤동주에게 개인적인 공감을 겪지 않았을 때이므로 그냥 ‘윤동주는 곧 절개의 사람이기 때문이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시 “길”에서 그가 주머니를, 돌담길을 더듬으며, 눈물 지으며 길을 걸어가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괴로움에 나는 적지 않게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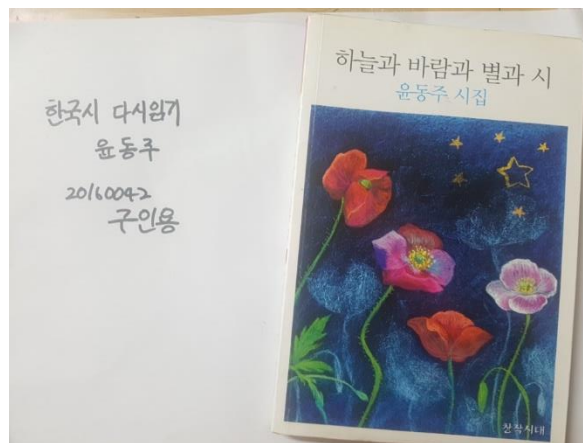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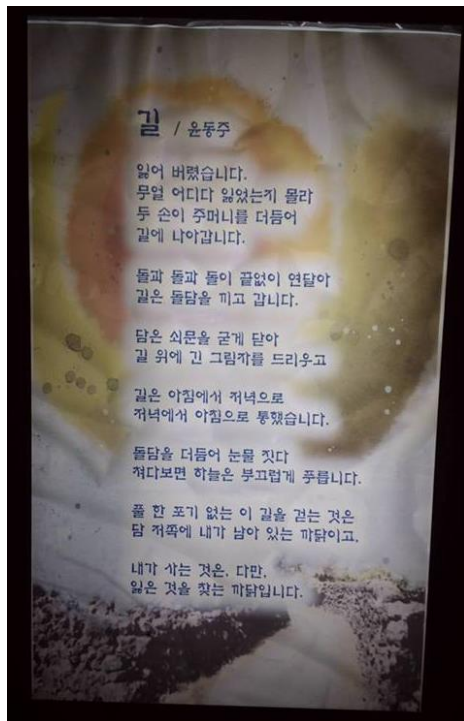
더욱이 그 때 나는 새내기로서 술과 과제로 정신 없이, 스스로를 돌아볼 여력 없이 ‘이것이 청춘이겠거니’ 하며 방황하듯 하루를 살아가던 때에 마주친 글이어서, 잠시 멈추고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또 무엇을

<sup>2</sup> 어쩌다보니 기형도의 시를 두 번이나 언급하게 되었는데, 윤동주와 기형도 모두 젊은 감각에서 괴로움을 이야기했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필 내가 좋아하는 두 시인이 연희전문/연세대학교 선후배 관계라는 것도 신기한 우연이다.

찾고자 사는지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글이었다. 같은 처지의 비슷한 괴로움을 토로하는 벼를 돌담길에서 만난 것 같아 왠지 위로가 되는 글이기도 했다.

기형도의 글처럼, 윤동주의 글은 나와 비슷한 나이에 쓰여져서 그런지 유난히 와닿는 것이 크다. 학교에서 나는 윤동주의 글을 감상하는 법을 배웠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좀 더 친근하게 그를 이해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

아. 에세이를 쓰며 글의 방향성을 먼저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역시 깨닫는다. 현재 시각 4시 10분, 여느 때처럼 가장 밤이 깊을 때에야 글이 마무리가 되었다. 다만 내일 전공과목의 퀴즈가 있다는 것이 나를 잠들 수 없게 한다. 교양 과목의 5점 에세이를 전공 퀴즈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는 답할 수 없지만, 내 나름의 최선으로 다시 한 시인을 정리했다는 만족감에 후회는 없다. 이제 나는 기숙사로 돌아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겠지. 으.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늘과 바람과 별의 시〉 윤동주 (창작시대사)

1 판 1쇄 인쇄 : 2011년 8월 8일

← 2016년 11월, 유성구청 앞 버스정류장